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외국어스쿨’ 열기

울 수강생 600명 5개 과정 3월부터 수업
지난 3년간 시민·학생 등 3300명 수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스쿨’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 3월 개강 이후 수업 두 달째를 맞는 외국어스쿨 현장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진지한 표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Better the last smile than the first laughter” (처음의 큰 웃음보다 마지막 미소가 더 좋다.)

“活到老, 學到老”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은 배우고 산다.)

광주U대회 외국어스쿨 영어·중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호남대 어학원·공자아카데미에서 최근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지금 배우는 외국어를 사용해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수강생들이 내놓은 답변이다. 수강생들은 “열정과 미소로 최선을 다하는 원어민 강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매 시간마다 듣는 수업이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입을 모았다.

울 상반기 외국어스쿨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60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광주과학기술원 언어교육원 등 11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어반은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 한 9개 대학, 중국어반은 송원대·남부대·호남대 등 3개 대학, 스페인어·불어·일어반은 조선대에서 각각 교육중이다. 교육기간은 영어반은 3개월 그 밖의 외국어는 2개월간이며, 매주 2회 2시간씩 진행한다.

이에 앞서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문태)가 지난해 외국어스쿨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가 넘는 수강생들이 ‘외국어스쿨 과정운영과 수업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에서 영어 중급반을 수강중인 선모 씨(42·금호동)는 “광주시민으로서 세계적인 행사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광주를 찾는 선수와 관광객들에게 친절함 속에 진심함을 담아 광주의 밝고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서 중국어 중·고급반에 다니고 있는 박모 씨(29·용봉동)는 “광주U대회는 중국어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



지난 9일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외국어스쿨에서 중국어 원어민 강사가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로, 외국인과 직접 대화하면서 현장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현재 외국어스쿨 수강생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층들이 좀더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동 등지에서 해외 근로자들과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수강생 박모 씨(80·상무1동)는 “지난해 나주 농업박람회에서 일본인과 인도네시아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말

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인 U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유감없이 영어실력을 발휘해 보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외국어스쿨은 광주U대회 조직위가 외국어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이다. 지역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원어민 회화수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 3년간 33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외국어스쿨을 수료했으며, 조직위는 올

해부터 지난 외국어스쿨 수료자를 포함한 신규 수강생들은 자원봉사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했다. 자원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학습함으로써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외국어스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홈페이지(gwangju201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지하철 기상정보 활용 우수

기상청 날씨경영 인증 기상정보 서비스

광주지하철이 기상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비 성과를 인정받아 기상청으로부터 ‘날씨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는 최근 기상청이 실시한 ‘제3회 날씨경영기업 인증’에서 날씨정보 활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기상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따른 시설물 보호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승객들이 어떠한 날씨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점이 인정받았다.

또한, 평소 모든 임·직원이 사내 전산망을 통해 날씨정보를 주시하는 것은 물론, 우천이

나 폭설 등 기상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기상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날씨경영인증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로, 기상정보 활용성과 기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감사 등 3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최고의 안전지하철 운영을 위해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해 온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시민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재배·전시공간 조성

민간투자자 공동 특수목적법인 설립

광주시는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재배·전시공간 조성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목적법인은 ㈜지엘푸드(GLFood)로,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재배시설 민간사업자인 ㈜장수채&B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지엘푸드는 서방지하상가 LED 조명 전시공간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수익 창출을 위해 한사모(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공동으

로 LED 조명과 한지 공예품을 조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공간도 만들 계획이다.

서방지하상가는 1997년 2월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나섰다. 분양이 저조해 1999년 10월 광주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이후 LED 조명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LED 식물재배시설 설치 추진해오고 있다. LED 식물재배시설은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식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열상추류·샐러드·새싹류·시금치 등의 작물을 무농약으로 연중 계속 생산할 수 있다. /박진기기자 hucky@kwangju.co.kr

5·18 33주년 맞아

망월 시립묘지 정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시립묘지를 찾는 시민들의 편안한 참배를 위해 시립묘지인 영락(망월)공원 정비작업에 나섰다. 광주시는 시립묘지를 찾는 참배객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종합건설관리본부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 영락공원 주진입도로 1.5km의 차선과 망월묘역 주차장 300면을 도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락공원 진입시 운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진입도로에 교통안내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처음 묘역을 찾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묘역 내 청결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와 공한지 정비, 벌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4일부터 18일까지 참배객과 5·18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을 위해 야외 천막 2개 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1억300만달러 구매계약...광주LED 日 진출

市통상진흥지원단, 재팬 메디스 홀딩과 체결

MIG(Made In Gwangju)브랜드를 단 LED조명제품이 일본에도 진출한다.

강원대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통상진흥지원단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1억300만 달러 규모의 MIG브랜드 LED 조명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성사된 계약은 도쿄에 있는 LED제조 및 판매기업인 재팬 메디스 홀딩(Japan Medix Holding)과 ㈜세디 간에 이뤄진 것으로, 미국시장에 이어 일본에서도 광주 LED제품의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 재팬 메디스 홀딩사는 수입제품 선택을 위해 한국 수도권 LED조명업체들을 접촉해 오던 중, 지난 4월

광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LED조명이 포함된 광주시 확산형 육성정책을 듣고 수입선을 MIG 브랜드 LED조명 제품으로 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팬 메디스 홀딩사는 이번 구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에 해외투자법인인 JMHG(가칭)를 설립해 일본 고객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MIG 브랜드 LED 제품이 진출한 데 이어 이번엔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수출 선진화와 함께 광주 LED기업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통상진흥단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주)세딕과 재팬 메디스 홀딩(Japan Medix Holding)간 1억 300만달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조장형 (주)세딕 대표, 강문태 광주시장, 기무라 마사오 재팬 메디스 홀딩사 대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률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a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자부담 550 ~680만원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